

경제

“친구야, 1억 어떻게 모았니?”...사회초년생, 예적금 가입시 ‘이것’ 아시나요?

류영상 기자 ifyouare@mk.co.kr

입력 : 2023-06-20 15:11:19 수정 : 2023-06-20 15:17:47

이자만 보고 특판 가입 안돼
특판 예적금 우대금리 따져야
청년우대형 금융상품 활용



[사진 = 연합뉴스]

주식·코인 등 고위험 투자가 시들해지면서 1억원 상당의 목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고금리 특판 예·적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0일 목돈 마련 등 자산관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예·적금 가입 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유자금을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때는 적립식 상품인 정기 적금, 목돈을 운용할 때는 거치식 상품인 정기 예금에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 다만, 정기예금 상품과 정기적금 상품의 총 납입금액, 약정금리, 계약기간이 동일할 경우 정기적금의 실제 지급이자는 정기예금 보다 적다.

정기예금은 예치된 전 기간에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나, 정기적금은 저축금별 입금일로부터 만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령, 3.5% 동일금리 조건에 600만원으로 만기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21만원이지만, 월 50만원으로 만기 1년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세전 이자는 11만3750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생활비, 여유 자금 등 자금사용 목적에 따라 통장을 분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유자금용 통장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면서도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시입출식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만, 파킹통장은 정기예적금과 달리 계약 이후에 약정금리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금감원은 특판상품 중에는 우대금리 조건이 복잡하거나 충족하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품설명서 등에 기재된 우대금리조건 내용을 체크한 뒤 가입 여부를 판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판 예적금상품은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공시되지 않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관련 상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청년우대형 금융상품도 적극 활용해 볼 만 하다.

일정 연령,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1.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주택 등의 조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하다.

또 근로활동 중인 사회초년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으로 본인 월 저축액에 최대 30만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원받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가입해 매달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을 해지하지 말고 담보대출을 먼저 살펴보고 농협, 신한 등 세제혜택이 많은 예·적금도 적극 고려해 볼 만 하다.

신입사원 여러분에게 유익한 예적금상품 정보

- ① 예적금상품은 목돈 마련 등 활용목적에 맞게 가입하세요.
- ② 여유자금용 통장은 파킹통장으로 가입하세요.
- ③ 특판 예적금 가입시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④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는 예적금 담보대출 등을 고려해보세요.
- ⑤ 예적금상품의 만기는 꼼꼼히 챙기세요.
- ⑥ 신협 등 세제혜택이 있는 예적금상품도 적절하게 이용하세요.
- ⑦ 청년우대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세요.

김석원 금감원 예금·대출상품팀장은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의 3000만원 한도 내 예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세가 비과세 된다”며 “그러면서 해

당 조합의 구역(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개별 조합의 정관에 따라 별도로 추가 가입요건을 요구할 수 있어 가입 전 해당 조합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